

롯데케미칼 “친환경·첨단소재 경쟁력 강화”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장 등 신설
전량 수입 ‘유기용매’ 국산화 가속
탄소포집·액화설비 내년 본격 가동
소재 원료로 사용하고 외부에 판매
‘그린 프로미스 2030’ 달성 견결음

롯데케미칼이 친환경, 고부가 스페셜티(첨단소재) 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롯데케미칼은 7일 충청남도, 서산시와 충남도청에서 공장 신·증설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 서산시 맹정호 시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롯데케미칼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67500㎡ 부지에 약 602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EC) 공장, CO2 포집 및 액화 설비 신설, EOA(산화에틸렌유도체) 및 HPEO(고순도 산화에틸렌) 공장 증설, 원료 설비 효율화 등을 진행한다.

●사업 경쟁력 강화, 소재 국산화에 기여

롯데케미칼은 먼저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인 고순도 EC(에틸렌 카보네이트)와 DMC(디메틸 카보네이트) 공장을 건설한다.

고순도 EC와 DMC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4대 구성요소(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중 하나인 전해액에 투입



롯데케미칼은 7일 충남도청에서 충청남도, 서산시와 공장 신·증설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서산시 맹정호 시장,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 롯데케미칼 황진구 기초소재사업 대표(왼쪽부터). 작은 사진은 롯데케미칼 EOA(산화에틸렌유도체) 공장 전경.



사진제공 | 롯데케미칼

되는 대표적인 유기용매다. 유기용매는 전해액 원가 비중의 약 30% 정도를 차지해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투자를 통해 사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재의 국산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롯데케미칼은 탄소 포집 및 활용(CCU) 파일럿 설비의 실증 운영을 마치고, 2023년 하반기 내 상업생산을 목표로 20만 톤 규모의 CO2 포집 및 액화설비를 건설한다. 이를 통해 포집된 CO2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전해액 유기용매 소재인 고순도 EC, DMC의 원료로 투입하는 한편 드라이아이스, 반도체 세정액 원료 등 외부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고충빌딩, 교량, 댐 등 대형 구조물 건설 시 콘크리트에 투입되는 감수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건축용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인 EOA(산화에틸렌유도체)의 생산

라인도 증설한다.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의 연간 EOA 생산량은 기존 33만 톤에서 향후 48만 톤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EOA 및 고순도 EC와 DMC의 원료 확보를 위해 HPBO(고순도 산화에틸렌)도 25만 톤 규모로 함께 증설한다.

또한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틸렌 생산 원료인 LPG(액화석유가스) 사용량을 현재의 10% 수준에서 약 30% 수준까지 사용할 수 있게 원료 설비 효율화도 진행한다. 원료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원료를 선택 투입함으로써 운영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번 투자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친환경·스페셜티 강화 및 이를 뒷받침할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 목표를 구체화하고, 지속가능기업으로서 지역 일직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는 “이번 투자는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 및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등 친환경 스페셜티 화학 소재 확대를 위한 Green Promise 2030의 핵심적인 발걸음”이라며,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당사의 주요 성장 발자취를 함께 해 온 오랜 동반자로, 롯데케미칼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롯데케미칼의 대규모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소재에 투자하는 롯데케미칼이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현대중지주 영업익 1조854억…사상 최대 실적 썼다

지난해 정유부문 호실적 힘입어
조선·건설기계 등 주력사업 개선
“친환경 기술 개발 등 수익성 강화”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가 7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8조 1587억 원, 영업이익 1조 85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유부문 현대오일뱅크가 호실적을 이끌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재고 효과 확대와 석유제품 수요 회복에 따른 제품 크랙(마진) 상승 등의 요인에 힘입어 현대오일뱅크는 매출 20조 6065억 원, 영업이익 1조 1424억 원을 달성했다.

건설기계부문의 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출범 이후 최대인 3조 5520억 원의 매출과 전년동기 대비 98.5% 상승한 1818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8월 그룹 편입 이후 매출 1조 6782억 원, 영업이익 373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매출 1조 8060억 원, 영업이익 97억 원을 거뒀고,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리트로핏(개조)과 선박 부품서비스 부문의 수주 호조로 전년 대비 7.8% 상승한 매출 1조 876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조선해양도 2021년 연간 실적을 발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친환경 선박의 발주 증가 등 본격적인 시장 회복세로 인한 조선부문의 건조물량 증가 효과로 지난해 대비 4% 증가한 15조 493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한국조선해양의 조선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은 전년 수준인 8조 3113억 원, 현대

삼호중공업은 전년 대비 8.2%가 증가한 4조 2410억 원, 현대미포조선은 전년 대비 3.4%가 증가한 2조 8872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 하지만, 통상임금 판결 및 지난해 상반기 강제가제 급등으로 인한 충당금 설정 등의 영향으로 1조 38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수주 목표 대비 52% 초과 달성하는 등 수주량의 증가와 선가 인상에 따른 효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돼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지주 관계자는 “지난해 일회성비용 반영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 데다 조선과 정유, 건설기계 등 주력사업의 시장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호실적이 예상된다”며, “수익성 위주의 영업전략과 시장을 선도하는 친환경기술 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사장. 사진제공 | 현대중공업지주

한편 현대중공업지주가 2018년 지주사 전환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현대중공업지주 사장으로 승진한 정기선 사장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정 사장은 1월 CES 2022에 참가해 “차별화된 기술 개발에 매진해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성열 기자

현대글로벌비스, 쏘카와 신사업 발굴 ‘맞손’

현대글로벌비스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 쏘카와 ‘신사업 제휴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사는 스마트 솔루션 기반 물류사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 개발과 기술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물류, 카셰어링 시장 선도 사업자로서 보유한 사업 역량과 자산을 기반으로 상호 혁신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물류 로봇 등 미래 물류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글로벌비스는 이번 쏘카와 협력을 통해 차세대 스마트 물류 솔루션 기술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쏘카는 연중 최대 1만8000대 규모의 차량을 운영하며 차량 배치, 관리, 정비 등에 커넥티드(통신형) 블랙박스, 자체 개발 차량관제 단말과 같은 기술, 데이터를 접목시키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물류 기술 고도화를 위해 쏘카와 데이터 기반 차량 관제·관리 시스템을 공유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차량 외관 검사 기술 실증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2월 9일(수) 음력: 1월 9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부리지 말라.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학업, 연구,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국가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서두르지 말라.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바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인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뜻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변면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대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반남이 연출된다. 자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იდ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자신의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피로감이 쌓이기 쉬울 때이다. 그러나 점차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뜻이 관철되는 계기가 조성된다. 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 재미 본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신용과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변민이 따르니 변화나 변동 상황에서 자제하여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머리를 쓰라.

중화학

스포츠동아 2022년 2월 9일 수요일 15

LG화학 “8년내 매출 60조 달성”

친환경 신사업 비중 절반 이상 확대 전략 발표



신학철 부회장

LG화학이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가 넘는 매출 60조를 달성하고, 친환경 고부가 신사업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블루오션 시프트 전략을 8일 발표했다.

2030년 매출 60조는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LG화학의 직접 사업만으로 계획된 수치이다.

신학철 부회장은 8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투자자 설명회에서 매출을 2021년 26조 원에서 2030년 60조 원으로 130% 이상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소재, 전지 소재, 신약 등 3대 신사업 매출도 3조에서 30조 원으로 10배 이상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R&D 투자도 가속화한다. 올해 연구개발 인원만 500여명을 증원해 3300여명을 확보할 예정이며, 연구개발비도 전년 대비 35% 이상 증액해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 부회장은 “지금의 기후위기와 디지털 대전환, 포스트 팬데믹으로 인한 산업계의 대전환기(Great Reset) 역시 LG화학이 ‘톱 글로벌 과학 기업’으로 도약하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2021년에 연결 기준 매출 42조 6547억 원, 영업이익 5조 255억 원의 경영실적을 달성했다.

원성열 기자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61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충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